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1호](2013.9)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 홍보
팀

한마음 단합대회, 열기속 에 흥겹게 개최되어

맑고 싱그러운 9월 1일 개최된 진여원 서울 포교소 한마음 단합대회에, 교도 모두의 화합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쏟아졌다. 그 동안 푹푹찌는 이상기온이 어느 새인지, 진여원 화합의 행사에 한풀 꺾여 한마음 단합대회가 즐겁게 진행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다. 스피드게임과 다트게임 및 탁구대회가 오전에, 정성들여 준비된 점심공양 후에는 모두가 one heart가 되어 웃놀이를 즐겼다.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한마음'팀이 경기와 게임면에서 우세를 보였으나, '환희'팀의 체계적이고, 분위기를 돋구는 응원열기에 점수가 더해져 '환희'팀이 승리하였다. 특히 '부처님 감사합니다! 소오야사마·료도지사마~! 게슈사마 ~!' 삼창에 이은 '3.3.7. 환희!' 박수는 매우 인상적인 응원모드로 모두를 흥겹게 만들었다. \오른쪽계속



부 산 정 사, 공사 재개

공사장내 일부 토양의 오염정화문제로 약 2개월간 중지되었던 부산정사공사가 9월 2일 재개되었다. 그동안 정밀검사를 통해 정화방안이 마련되고, 정화기업이 선정되어 정화작업을 거쳐 정사의 토양을 깨끗하게 정화, 부처님을 모시는 정사로써 한점의 불순물도 없는 성스러운 장소로 되었다.

일부 신도들은 11월 3일 개최되는 일여축제에도 이러한 행사가 더 개최 \뒷면으로

↘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하였고, 이 열기를 이어 상참배를 멋있게 준비 하자는 각오가 새롭게 다져졌다.



남편, 어린 아이, 시아버지, 새언니가족 모두 7명의 대가족이 함께 참여한 김효은 교도는 '일반법요 참석시에는 대화의 상대가 같은 소속들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큰소리로 응원하는 모습이랑 평소에 보고 느낀 바와 상이한 모습을 보게 되어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 개최에 정말 잘 참석했다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



웃놀이는 1:1로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판의 마지막 아슬아슬한 순간에 확실한 승기를 잡은 '한마음'팀이 던진 '말'이 바깥으로 나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회회'팀에 승부를 안겨주는 데 공헌한(?) 이옥희 교도는 '틀림없이 이겼다고 자신만만했는데,...속단은 금물이며, 무엇이든 끝까지 해보야만 된다'는 큰 가르침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kht707@hanmail.net>

단합대회 선두에서 준비한, 홍구표 청년부장, 인터뷰

☎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 청년 뿐 아니라, 장년을 포함한 모든 교도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인데,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한마음(One heart)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주신 청·장년 그리고 사무국원 및 당일 참석해 주신 분, 참석하지 못하신 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쁨속에서 마칠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신 것이, 부족함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 게이슈사마께서 'One heart'와 '청년을 믿고 있으니 청년일 때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주세요'라고 해주신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서원아래, 청년부에서 다가오는 상참배를 향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교도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단합대회'야말로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 기획하였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장면은?

☞ 청년 뿐 아니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주신 흥겨운 웃음은, 준비에 임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크나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 앞으로 굵직한 일들이 많은데, 서울포교소가 더 단단한 단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올해, 청년회의 슬로건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정진하는(전해가는) 청년회' 입니다. 저는 '함께' 라는 말이 곧 한마음(One heart)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포교소 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와 함께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대답자, 김진수)

<체험담> 시집간 딸의 갑작스런 백혈병.....개조·영조에 감사의
기도로 극복, 타인배려로 인생행로 바꾼 정숙자 교도....

쑥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했지만, 큰 힘을 받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체험담 발표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1996년에 입신을 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고 좋다고 하기에 귀중한 세월이 벌써 17년째가 되었습니다. 입신당시 저는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점심을 받으며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증오의 마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가천도를 통해 참회의 마음으로 회향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점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이랄까요, 지금까지는 장사가 잘되게, 자식이 잘되게 라는 기복의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씩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고, 무엇이든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딸이 자전거타다 넘어져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백혈병이 발견되어 바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께 매달리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저녁 기도하고 또 매일 귀원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정성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 항암치료 중에 골수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골수검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아들이 그때처럼 고맙고 든든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아들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다행히 골수가 맞아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골수가 안 맞으면 맞는 사람을 찾아야하고 비용도 저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이 가르침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와 정진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뿐이었습니다.

가슴아픈 생활 속에서도 감사에 가득찬 나날이어서 그런지 4월 20일 환희에자에서 감사하게 환희를 상송받았습니다. 오로지 제 마음속에는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진은 부족하지만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께서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남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시작한지 17년 동안에 부끄럽지만 이제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은 아프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감사와 편안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쁘기만 합니다. (정숙자, 7월 발표내용 요약)

<청파동 칼럼> 사마타수행, 위빠사나수행과 점심수행...유사점과 차이점

‘점심수행’은 기도, 명상과 비슷한 것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심경에 일여하고자 행하는 기도 중에 받는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보리향상 해 나가는 진여원의 독자적인 수행입니다. 점심수행의 기원은 석존이 왕자였던 어린 시절 농경제 때 파헤쳐진 땅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 서로 먹고 먹혀야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깊은 사유에 들어간 것에 연원합니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여신 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마타수행’과 ‘위빠사나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마타수행’은 고요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명상하며 번뇌를 단절하도록 마음을 비우고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 행복을 얻는 수행법입니다. 이에 비해 ‘위빠사나수행’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선정 상태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자신을 꿰뚫어보며 관조하여, 몸과 마음이 무상, 고, 무아인 것을 바르게 알고, 깊은 마음 집중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번뇌를 소멸, 해탈을 얻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불자들이 이런 수행을 통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노엔의 점심수행과 예자·영능 수행은 ‘사마타수행’과 ‘위빠사나수행’을 통합한 현대적인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통해 수행, 정진, 화두명상, 보리향상의 실천을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인도받아,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空)의 심경을 깨달아가며, 대승이타 실천을 통해 자신의 업을 소멸, 정화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듣고,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대반열반경의 신묘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

부산 연제고 학생 10명, 국제부 초대받아, 신초지 별원 등 룡띠우기 참관, 감동과 놀라움

부산정사가 건립되고 있는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한 연제고 학생 10명과 인솔교사 2명이 국제부 초대로 지난 8월 13일 4박 5일 일정으로 진여원 본산을 찾았다. 진여원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초청행사에서 학생들은 후지산 기슭 가와구치 호수가에 위치한 야마나시 별원을 참배하였다. ‘작다’는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달리 웅장하고도 청정한 신초지 별원과, 시민행사로 승격되어 수많은 시민들과 어우러져 개최된 ‘등룡띠우기’에 참석, 눈이 휘둥그레졌다. 학생과 교사는 이러한 기회가 계속 이어져 진여원의 진면목이 잘 알려지기를 희망하였다.

오픈하우스 봉사자, 사진 고르기에 땀방울...

9월 15일 개최될 오픈하우스에는 개조·영조·두 동자님 및 진여원의 세계적 발전과정과 관련된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시사진 선정, 전시물 만들기에 10여명의 봉사자가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포교소에 모여 땀방울을 흘렸다.

↘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상주하시는 부처님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이 바로 점심수행과 예자수행에 있음을 안다면, 현세에서의 즉신성불, 즉 일상생활 속에서 상락아정의 극락정토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박노경, 영능)

(칼럼은 진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